

지역 소식통



정읍 블랙베리·오디 인기

정읍산(産) 블랙베리와 오디가 전국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청정자연에서 친환경적으로 생산돼 안전하다...

시에 따르면 실제로 NS홈쇼핑을 통해 판매에 나선 오디의 경우 방송 40분 만에 2500여 박스(1박스 당 5kg)가 판매돼 9500여만원의 수익을 올렸다. 이어 7월 중순경 정읍 블랙베리의 동결 건조제품을 공영홈쇼핑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부안 행안면, 인구늘리기 캠페인

부안군 행안면이 28일 행안면에 위치한 제2농공단지에 내 대규모 닭고기 전문 업체인 참프레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안 인구 늘리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날 행안면은 김남철면장을 비롯하여 11명의 직원들이 출산장려지원사업, 나 누미근로장학사업 등 부안군 전입 시 지원혜택이 적힌 홍보물을 나눠주며 살기 좋은 부안군으로 전입하기를 적극 홍보했다.

“시민과 소통 공감행정 추진”

김생기 정읍시장, 민선6기 3년 맞아 “남은 1년 기업유치 등에 주력”

“민선 5기에 뿌린 씨앗이 열매를 맺은 희망찬 시간이었다고, 특히 전북 서남권 중심도시로서의 확고한 기반을 다졌으며 미래 100년 정읍의 먹거리를 찾는데 주력했습니다.” 김생기 시장은 28일 오전 11시30분 시청 중회의실에서 민선 6기 취임 3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소회를 밝혔다.



김 시장은 “지난 3년 12만 시민과 출향인사, 1400여 공직자와 혼연일체가 되어 바쁘게 뛰어다녔고 그 결과 값진 성과를 일구어 냈다”며 “남은 1년에는 그간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과 소통하면서 공감행정 추진과 기업유치, 일자리 창출에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중앙부처 40개, 전라북도 42개 모두 82개 부문별 평가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시장역량을 대내외적으로 과시했다고 밝힌 김 시장은 분 이별 성과를 상세하게 소개했다.

농촌을 만들기 위한 사업들도 내실 있게 추진됐고, 많은 결실을 거뒀다. ▲한국전기안전공사 연구원 실증연구센터와 교육원 착공 ▲행복주택 600호 오는 9월 착공 ▲3대 국책연구소 인프라 확충(22개 인프라 구축사업 완료되거나 진행 중) ▲첨단과학산업 단지(5월말 기준 64%)와 소성식품첨화 농공단지 분양이 대표적인 성과로 꼽힌다. 내장산을 중심으로 한 사계절 토탈 관광 실현 기반도 확실하게 다졌다. ▲내장산리조트골프장조성사업장이 내년 가을 개장을 목표로 순항 중이고 ▲내장산국민여가 캠프장은 전국 캠프명사로 자리 잡았으며 ▲백제가 요 정읍사 관광자 조성사업은 2019년 상반기 개장을 목표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 정읍농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강한

고창군의회 정례회 폐회... 12건 의안 심의

고창군의회(의장 최인규)는 28일 제 4차 본회의를 열어 제247회 제1차 정례회를 마무리하고 폐회했다. 지난 20일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이번 정례회에서는 박래환 의원 등 3명의 의원이 발의한 ▲고창군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가 제출한 ▲고창부른숲자연장 민간위탁 동의안 ▲고창군 호암 토굴형 명상센터 운영관리조례 ▲고창군 리의 하부조직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세징명 등 수수료 등 12건의 의안을 심의 했고, 이경신 의원 등 3명

의 의원이 발의한 ▲서남해 배타적경제수역 모래채취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제1차 본회의시 ▲김기현의원 항구적인 가뭄대책을 위한 수자원 확보, 고창관광 활성화, 고창쌀 명품화 브랜드 육성 및 농업 발전 방향, 황토배기 유봉 회생방안 ▲박정숙의원 불법 노점 및 적치물 단속 등 전통시장의 개선과 문화관광형 시장 조성을 통한 전통시장 발전방향 ▲조민규의원 쌀 값안정 대책, 읍내리 도시가스 미보급 지역 해소대책, 활어 회센터 조성 등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군정집문을 했으며, 박우정 군수는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문제점 개선 요구 사항과 제시해 주신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군정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고창=김영식기자

정읍시, 신규 일자리 창출 보고회 열어

정읍시는 지난 27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신규 일자리 창출 보고회’를 가졌다. 김생기 시장이 주재한 보고회에는 간부 공무원과 40여명의 부서장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56개 부서에서 2385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77개 사업을 보고했다. 대표적인 사업은 청년공직체력 일자리와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공공근로 확대, 시민 환경 지킴이 운영 등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대통령 정책공약 대응 방안과 정부의 일자리 창출 방향을 공유하고 부서별로 발굴한 일자리 사업에 대해 깊이 있게 논의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추경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밝힌 중소기업 청년고용지원제도와 ‘청년구직 촉진수당’ 신설과 관련, 사업 계획 수립 등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중소기업 청년 고용지원제도는 중소기업이 청년 두 명을 채용하면, 추가로 한 명을 더 채용할 수 있게끔 추가 고용 한 명의 임금을 국가가 3년간 지원한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일자리 창출의 가장 큰 문제는 예산확보”라며 “필요한 사업비를 정확히 산출하여 중앙정부 추경 편성과 연계해서 예산 확보에 차질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지방하천 정비사업 ‘순항’

하천 정비 등 재난재해 선제적 예방 총력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 실현’을 전략목표로 내걸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재해예방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고창군은 용산천, 주진천, 갈곡천, 해리천, 칠암천 등 6개 지구 5개 하천에 총 사업비 877억원(2017년 104억 원)을 투입해 하천정비사업을 2021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용산천은 지난 2013년 말 공사를 착공해 4.4km 구간의 제방축제와 호안 정비, 교량 8개소 재가설, 제방도로 포장 등을 추진해 올해 6월 준공을

앞두고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정비 사업을 통해 하천 폭이 좁고 제방 높이가 낮아 집중호우 때면 되면 침수 위험이 있던 하천 주변 농경지 약 55ha, 주거지 3.2ha의 침수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총 사업비 120억을 투자해 무장면 월림리, 도곡리, 송계리를 흐르는 해리천 3.6km를 정비하는 해리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이 설계가 완료돼 오는 7월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다. 또한 올 초 5.7km 하천을 정비하는 칠암천 지방하천정비사업의 설

계 용역도 신규사업(총사업비 190억)으로 확정돼 이달 말 착수에 들어갔다. 칠암천은 일부구간이 영광군과 고창군의 경계로 영광군측(좌안)을 전라남도청에서 지난해부터 정비를 시작해 집중호우 시에는 고창군 측 농경지 침수가 우려되어 왔으나 박우정 군수를 비롯해 군 관계자들이 관련 국가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95여원의 국가예산을 확보했다. 박우정 군수는 “군민들의 안전한 생활환경 마련을 앞으로도 상습침수지역 등 재난재해를 선제적이고 항구적으로 예방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기자

농촌진흥청 농업과학원, 부안군 참뽕연구소 방문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남선)는 지역 농업기관 협력 강화 및 농업생물분야 산업 현장탐방을 위해 지난 27일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 부 박사후연구원, 행정실무원 등 민간인근로자 110명이 부안 참뽕연구소와 유유마을, 누에터운을 방문했다. 이날 김두호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장은 “우리 나라 양잠 특화지역인 부안에서 양잠 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신 소득원 개발을 위한 기관 간 소통의 장이 마련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기능성 물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뽕잎, 오디 등을 이용한 양잠산업을 육성하려고 기관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이번 방문을 통해 직원들의 농업생활 분야를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와 서로 협력하여 연구를 추진 현장 점검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증식은 격포에 위치한 음식점에서 부안에서 야생 차게 준비하고 있는 뽕 비빔밥 정식 110인분을 시범으로 첫 식사를 보여 호평을 받았다. 농업기술센터 강성 선 친 환경기술과장은 “뽕나무의 고장 부안을 방문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 드린다”고 말하며 “앞으로 부안 지역의 첨단 양잠산업을 이끌어가는 메카가 될 수 있도록 농촌진흥청과 적극 협력하여 농가 신 소득원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기자

Advertisement for Mulberry Wine. It features a large image of a bottle of Mulberry Wine and several gift sets. The text includes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and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There are also images of a cartoon bear and various gift set boxes.